

研究論文

# 〈현수문전〉 이본 연구

주수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국문학 전공  
woowang-j@hanmail.net

I. 머리말

II. 〈현수문전〉 이본 검토

III. 〈현수문전〉 선본(善本)과 이본 계통

IV. 맺음말

## I. 머리말

영웅소설은 대개 기자치성(祈子致誠)에 의해 태어난 주인공이 유년 시절의 고난을 극복하고 타고난 비범성과 조력자의 원조를 발판으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등장은 주인공을 구국(救國)의 영웅으로 만든다. 그러나 일부 영웅소설에는 왕조교체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주인공의 활약과는 별개로 왕조가 교체되는 서사가 담겨 있기도 하다.<sup>1)</sup> 이러한 왕조의 존립과 관련된 서사적 다양성은 영웅소설이 보편적인 서사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독특한 시도를 해왔음을 방증한다. 한편 여타의 영웅소설은 이본에 따라 서사적 다양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줄거리, 특히 결말에서는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현수문전〉 이본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결말은 작가의 창작의도가 구현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양상은 〈현수문전〉 이본들이 서로 다른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수문전〉은 주제는 물론이고 서사의 전승(傳承)과 변개(變改)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 꼼꼼한 이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선행들 역시 〈현수문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먼저 이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수문전〉 이본 연구에 선행을 잡은 최범호<sup>2)</sup>는 경판65장본과 필사본인 김동욱본, 그리고 구활자본

- 
- 1) 왕조교체가 주요 화소로 등장하는 작품에는 〈장백전〉, 〈유문성전〉, 〈옥주호연〉, 〈현수문전〉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상진,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구조와 두 가지 문제」, 『우암사려』 제4권(1994); 김용기, 「출생담을 통한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내용 비교연구」, 『어문연구』 제37권 제2호(2009); 김용기,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 〈음양삼태성〉과 〈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3호(2009); 주수민, 「〈장백전〉의 형성동인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제41권 제2호(2013). 이 가운데 김용기는 이러한 작품들에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그 서사적 특성을 보다 선명히 하였다(김용기, 「출생담을 통한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내용 비교 연구」, 『어문연구』 제37권 제2호, 2009, 192쪽). 한편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漢族이 세운 명이나 宋의 창업 공신으로 활약하는 데 비해, 〈현수문전〉은 주인공인 현수문이 창업의 주역도 아닐 뿐더러, 女眞 혹은 元이라는 이민족 국가의 창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변별성을 갖는다.
  - 2) 최범호, 「현수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최범호가 검토한 구활자본 4종은 조선서관본, 신구서림본, 태화서관본, 세창서관본 등이다.

4종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관65장본을 선본(善本)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범호의 논의는 〈현수문전〉 이본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이본의 양이 적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후 김종철은 후반부의 서사적 차이를 중심으로 이본들의 계열 분류를 시도하며, 먼저 송조(宋朝)가 유지되는 결말을 맺고 있는 경관65장본과 송의 멸망과 새 왕조의 창업을 담고 있는 구활자본들을 각각 '방각본 계열'과 '구활자본 계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후반부가 낙장인 필사본들 역시 동등한 '필사본 계열'로 분류함으로써 〈현수문전〉 이본들은 3개의 계열로 나뉘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김종철의 계열화에 조해숙은 필사본들이 지니는 서사적 공통성을 추출해내며 힘을 실었으며<sup>4)</sup>, 김현정과 임채문 역시 김종철이 제시한 이본 분류를 수용하면서 보다 많은 이본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sup>5)</sup>

- 
- 3) 김종철은 경관65장본과 경관75장본 등 2종의 방각본과 김동옥본·박순호본·사재동본 등 낙질의 필사본 3종, 그리고 조선서관본·태화서관본·신구서림본 등 구활자본 3종을 이본 분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경관75장본은 경관65장본과 동일본으로 김동옥과 파리동양어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이본이 『한국고전소설관각본자료집』 3권과 5권에 각각 실리는 과정에서 5권의 목차에 20장의 상권이 30장으로 잘못 인쇄된 데에서 온 착오인 듯하다. 따라서 김종철이 검토한 방각본은 경관65장본 1종이 되는 셈이다. 또한 김종철은 김동옥본, 사재동본, 박순호본 등을 모두 낙질의 필사본으로 보고, 이들 이본을 서사적 착오가 발견되지 않고, 서사 전개가 매끄럽다는 점을 들어 '필사본 계열'로 분류하였다(김종철, 「玄壽文傳의 분석」, 『인문논총』 제1권 제1호, 1990, 41-46쪽).
- 4) 조해숙, 「〈현수문전〉 이본고」,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제49권(1993). 조해숙은 김종철이 검토한 이본들과 더불어 천리대본의 서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필사본 계열의 서사적 공통성을 추출하였다. 첫째, 현택지의 꿈에 선관이 나와 현택지가 「인간 세상에 나와 무죄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무자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 둘째, 울남왕의 중원 침범이 수문모자의 이산의 계기로만 작용한다는 점. 셋째,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황성 가는 길에 현수문과 동행한 세 선비의 이름이 전반부에 제시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문이 문무장원이 아닌 문과장원만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64-65쪽). 그러나 이 중 현택지의 몽사는 필사본 계열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몽사의 존재 자체가 특징이라면 경관본을 제외한 구활자본에도 몽사는 나타나며(「인간의 격강하여 부후하게 접지하여 계시더니」, 조선서관본, 2-3면), 無子의 원인을 인간 세상에서의 득죄로 돌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같은 필사본인 천리대본은 천상에서의 득죄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천상에 득죄하여 인간의 너저 무즈귀가 되게 하였더니」, 천리대본, 권지상-2).
- 5) 김현정은 경관65장본과 김동옥본·사재동본·박순호본·천리대본 등의 필사본 4종, 그리고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오성서관·대산서림·세창서관본을 포함한 6종의 활자본들의 서지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임채문 역시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동양문고본·홍윤표본·정명기본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이본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김현정, 「〈현수문전〉의 이본 특징과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37쪽; 임채문, 「〈현수문전〉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19쪽).

그러나 <현수문전> 연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김종철의 계열 구분은 이본들을 계열화하고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완전한 서사를 담고 있는 이본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각본 계열'은 다른 경관본이나 완판본<sup>6)</sup>에 대한 검토 없이 오직 경관<sup>65</sup>장본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사본 계열'은 모두 뒷부분의 서사를 확인할 수 없는 낙장의 이본들만 검토한 것이다. 둘째, 이본 분류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각본 계열'과 '구활자본 계열'은 왕조교체 여부에 따른 서사적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필사본 계열'의 작품들은 필사본들 간의 서사적 공통성을 들어 하나의 계열로 묶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열 구분은 출판 형태에 따른 구분 그 이상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완결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가능하면 많은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기준에 근거한 이본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의 서사적 유기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선본(善本)을 상정하고, 아울러 이본의 계통과 그 변모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 II. <현수문전> 이본 검토

### 1. 이본 현황

지금까지 필자가 검토한 이본은 총 16종으로 모두 국문본이다.<sup>7)</sup>

6) 조희웅의 『고전소설이본목록』(집문당, 1999), 883-834쪽에 의하면 '丁巳九月完西開板'이라는 간기가 있는 상권 낙질의 故강전섭 교수 소장 완판본이 존재한다. 그러나 現소장자의 사정상 완판본을 열람할 수는 없었다.

7) 검토한 이본들 가운데 경관<sup>66</sup>장본, 홍윤표본, 병신년필사본, 문화관본, 정명기본 등은 이 글에서 처음 소개하거나, 소개는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이본들이다. 이 이본들을 열람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정명기 교수님, 홍윤표 교수님, 그리고 완판본문화관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1) 방각본

### ① 경관65장본

3권1책 합본으로 상·중·하권은 각각 20·23·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면 15행(行)이며, 각 행은 25자(字) 내외이다. 하권 말미에 ‘油洞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김동욱 및 파리동양어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한적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에 조선광문회에서 발행한 육당본 역시 동일한 판목(版木)으로 인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 ② 경관66장본

2권2책으로 65장본과 같이 ‘油洞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상·하권이 모두 32장으로 확인되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권은 본래 34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현재 파리동양어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M古4-1-162)을 보관하고 있다.

## 2) 필사본

### 【완질】

#### ① 박순호본<sup>9)</sup>

총 64장으로 내제는 ‘현슈문전 권지단’이다. 『한글고소설필사본총서』 49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매 면은 12행, 각 행은 31-37자로 행별 지수(字數)의 차가 큰 편이다. 한문식 표현 및 장면에 대한 부연과 확장이 많으며,

8)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관본 2종의 각자체를 살핀 결과, 삼권본인 경관65장본은 경관66장본의 판목을 부분적으로 산략 혹은 개각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48-249쪽 참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경관66장본의 상권은 총 32장으로 경관65장본 상권 전체와 중권의 서사 일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66장본의 하권 첫 장을 살핀 결과, 66장본의 상권에는 한 장 이상 분량의 서사가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창현의 논의와 같이 상·하권의 경관본을 ‘경관66장본’이라고 하였다.

9) 박순호본은 그동안 ‘현슈문전 권지단’이라는 내제에도 불구하고 계양춘과 노양춘이 현수문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 이후의 서사가 없고, 마지막 장에 ‘하권의보소서’라는 문장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낙절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검토 결과, 박순호본에서는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신친자와 현수문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으로 비롯되는 후반부 서사가 전개될 여지가 없었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현수문의 일생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진실노 장호도다 맛당히 송독함”이라는 고소설에서 흔히 쓰이는 종결 문구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순호본을 完本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후 박순호본의 원문 인용은 『한글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9』(서울, 1986)에 수록된 내용과 해당 쪽 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다.

권점과 함께 앞으로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지나간 사건을 정리하는 문장들이 자주 나타난다. 마지막 장에는 한문으로 된 에필로그가 있다.

#### ② 천리대본<sup>10)</sup>

일본 천리대학교도서관 금서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본을 보관하고 있다. 2권1책으로 상·하가 각각 63·36장으로 되어 있으며 매 면은 10행, 각 행은 17-20자로 달필(達筆)의 궁체가 돋보인다.

#### ③ 동양문고본

일본 동양문고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8권8책의 항목동 세책본이다. 각권은 30-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면은 11행, 각 행은 14자 내외이다. '세을사증추일항목동서(권1, 2, 3, 5)'와 '세을사계추일항목동서(권4, 7, 8), '세을희증추일항목동서(권6)' 등의 간기가 있다.

#### ④ 홍윤표본<sup>11)</sup>

4권4책으로 권1·권2·권3·권4가 각각 49·48·49·45장인 총 151장본이다. 책의 크기는 모두 26.8×22.2cm이고 매 면은 12행, 각 행은 17자 내외이다. 권1의 표지 뒷면에는 '交河山南四美洞宅'이라는 소장자가 기록되어 있고, 권4 마지막 장에는 '己未十二月初一日下帶洞潭溪畢'라는 필사기가 있다.

---

10) 천리대본(현수문전)은 그동안 합철된 〈六仙記〉에 적힌 낙서를 토대로 구한말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어왔다(김종철, 앞의 논문, 62쪽). 이 글에서 확인한 결과, 천리대본 〈육선기〉에는 '세직갑오정월일운곡서'라는 필사기와 '대한협회(1907-?)', '일진회'(1904-1910), '대동학회'(1907-?) 등의 낙서가 있었다. 따라서 〈육선기〉의 필사 시기는 1894년 갑오년이며, 낙서들은 대략 1907년 이후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영인본의 형태로 소장된 천리대본 〈육선기〉와 〈현수문전〉은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천리대 일련번호를 갖고 있었으며, 천리대에 기증된 시기도 달랐다. 따라서 〈육선기〉를 바탕으로 천리대본의 필사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두 작품의 합철 여부에 대한 재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홍윤표본은 세책본인 동양문고본과 서사적 친연성이 높은 이본이다. 또한 매 장 첫면 위쪽 가운데에는 장수가 적혀 있고 각권의 마지막 장에는 '차청하위호소'라는 문장이 있어 세책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나, 개인 소장자가 기록되어 있고 각권에 필사기가 있는 일반적인 세책과는 달리 마지막 권에만 필사기가 나타난다는 점 등 세책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격을 단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본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만 필사본으로 보기로 한다.

### ⑤ 병신년필사본

‘현수문전 단’이라는 표제와 ‘현수문전나라’를 내제로 한 필사본으로 인터넷 헌책방에 게시되어 있었다. 매 면은 10행, 각 행은 28자 내외로 추정되며, 마지막 장에 ‘병신춘이월이십오일에형계은서하노라’는 필사기가 있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을 통해 경판본을 필사한 것임을 확인했다.<sup>12)</sup>

### 【낙질】

#### ⑥ 김동육본

총 44면으로 내제는 ‘현수문전나라’이다. 매 면 13행 각 행은 20-27자이며, 한문본 ‘의방요초(醫方要草)’ 뒷면에 필사되어 있으며, 칠보암에서 현수문과 석 소저가 재회하기 직전의 서사까지만 남아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마이크로필름(R35P000042-2)을 보관하고 있다.

#### ⑦ 사재동본

총 117면으로 내제는 ‘현수문전 일이삼’이나 분권되어 있지 않다. 매 면 12행 각 행은 24-27자이며, 위왕이 된 현수문이 위국으로 석침을 데려오고 왕비에게서 3자 1녀를 낳았다는 서술 이후가 낙장이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마이크로 필름(R16N001261-7)을 보관하고 있다.

#### ⑧ 문화관본<sup>13)</sup>

2권2책으로 전일·전이는 각각 38장·36장이다. 책의 크기는 28.5×20cm 이고 매 면은 11행 각 행은 24자 내외이다. 진면으로부터 송실을 구하러 온 현수문의 토산마가 죽는 장면까지의 서사만 담고 있어 적어도 1권 분량 이상이 더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병신년필사본은 인터넷에서 발견(www.heebok.co.kr 집현전 헌책방, 2013. 11. 25. 21:52)하였으며, 발견 시점에는 이미 거래가 종료된 상태였다. 다만 게시된 표지와 첫 장 및 마지막 장을 통해 경판본을 필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필사기에 적합한 간기를 따라 ‘병신년필사본’이라 하였다.

13) 문화관본은 조희웅의 『고전소설이본목록』에 제시된 2권 낙질의 홍윤표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2권 가운데 ‘전일’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판분문화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전이’는 홍윤표 교수가 소장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명칭에서 오는 주관성을 배제하고, 논의 가운데 주요하게 다루어질 또 다른 홍윤표 소장본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이본을 ‘문화관본’이라 부르기로 한다.

### ⑨ 정명기본

권3과 권7만이 전하는 낙질의 세책본이다. 권3의 크기는 17.5×22.5cm 이고 2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면은 11행 각 행은 16자 내외이다. 또한 권7은 16×21cm이고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면은 10행 각 행은 16자 내외이다. 권3과 권7의 말미에는 각각 ‘세즈꺠희(이하과장)’와 ‘세즈꺠히스월일이현필셔’라는 필사기가 있다.

## 3) 구할자본

### ① 조선서관본(朝鮮書館本, 1915)

내제는 ‘일티명장 현수문전’이고, “編輯 朴建會”라는 문구가 있어 박건회가 편집 및 발행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총 23회로 2면에 걸쳐 각 회의 제목들을 국한문으로 병기해놓았다. 총 122면으로 매 면은 17행 각 행은 36자이다. 마지막 장에는 ‘렬필 소를 먹이다 호고 오디승을 퇴살호다’라는 조선단편이 이어지며, 북한에서 출판된 <현수문전><sup>14)</sup>의 원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② 신구서림본(新舊書林本, 1917, 1920, 1922, 1923)

내제는 ‘고티쇼설 현수문전’이며, 발행인은 박운보이다. 총 122면으로 매 면은 18행이고, 각 행은 35자이다. 상·하가 각각 4회인 총 8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권 가운데 ‘하’와 하권 가운데 ‘데일’의 회차 표시는 편집 시 누락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③ 태화서관본(太華書館本, 1918)

내제는 ‘일티명장 현수문전’으로 발행인은 역시 박건회이다. 총 110면

14) 북한 문예출판사에서 1988년 발행한 <현수문전>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으로 시작하는 윤기택의 서평과 김칠환 윤색문, 원문, 주해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으로 제시된 작품은 서사 및 구성뿐 아니라 윤남의 왕자인 ‘조승’을 ‘초승’으로 잘못 쓰인 것까지 조선서관본과 동일하였다.

【조선서관본】 “나는 윤남턴즈의 제이즈 초롱이러니 [...] 적의 바다가지고 본진에 도라와 원수 류공을 보고 초승 범녕의 말을 일으니……” (7-8면).

【문예출판사】 “나난 윤남천자의 제이자 초롱이러니 [...]적의 받아가지고 본진에 돌아와 원수 류공을 보고 초승 범녕의 말을 이르니……” (172-173쪽).

한편 김칠환의 윤색문은 조선서관본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변개하여 전체를 21회로 구성하고 위왕 현수문이 송실을 멸하고 천자가 된 여진왕을 죽이고 다시 송천자의 아들을 황제로 삼는 것으로 서사를 종결하고 있다.



으로 1-104면은 매 면이 19행이고 각 행은 35자이나, 105면부터는 24행이다. 회차 목록과 이어지는 단편은 없으나 구성과 서사 그리고 대정 4년(1915)에 초판이 발행되었다는 기록으로 조선서관본의 재판(再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④ 대산서림본(大山書林本, 1926)

내제는 '고딕쇼설 현수문전'으로 발행인은 이면우이다. 총 115면으로 매 면은 19행, 각 행은 35자이나 신구서림본과 동일본이나 신구서림본과는 달리 상권의 '데삼', 하권의 '데이', '데삼'을 제외한 나머지 회차가 누락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⑤ 세창서관본(世昌書館本, 1952)

내제는 '일딕명장 현수문전'으로 발행인은 신태삼이다. 서사는 물론 지면의 구성방식까지 태화서관본과 동일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sup>15)</sup>

이 글에서 검토한 필사본들은 서사적으로 친연성이 높은 이본들이 존재하기도 하나 대부분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판본 2종과 구활자본 5종은 각각 구성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판본(板本)별로 동일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종의 경판본은 '경판본'으로 5종의 구활자본은 '구활자본'으로 묶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sup>16)</sup>

## 2. 이본 분류

〈현수문전〉은 소위 '영웅의 일생'에 따른 서사 전개를 보이는 전반부와 현수문이 위왕이 되어 위국에 정착한 이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

15) 그 밖에도 1915년에 박건회가 발행한 오성서관본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서관본과 같은 해에 같은 사람에 의해 발행되었고, 조선서관본의 총발매소가 오성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서관본과 동일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16) 동일한 방각소에서 간행된 경판본 2종은 동일한 서사를 가졌으며, 5종의 구활자본은 조선서관본인 '일딕명장 현수문전'이나 신구서림본인 '고딕쇼설 현수문전'을 재발행한 것이다. 또한 조선서관본과 신구서림본은 구성상의 차이만 있을 뿐 서사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한편 필사본 가운데 첫 장과 마지막을 제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병신년 필사본은 이본 분류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요 서사 단락을 살펴봄으로써 이본 간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sup>17)</sup>

표1은 전반부의 서사 단락을 정리한 것이다.

표1-이본별 전반부 서사 단락 비교<sup>18)</sup>

서사 단락	이본 계열	A계열				B계열				
		홍윤 표본	동양 문고 <sup>19)</sup>	구월 자본	경판본	천리 대본	박순 호본	김동 육본	사재 동본	문화 관본
① 현 시랑 부부 회주승에게 시주 후 출생		✓	✓	✓	✓	✓	✓	✓	✓	✓
② 5세에 현 시랑이 무량도로 유배되고 윤남의 침입으로 모친과 이별		✓	✓	✓	✓	✓	✓	✓	✓	✓
③ 윤남(윤남)과의 전쟁 양상	③* 윤남이 宋軍에 패하여 달아남					✓	✓	✓	✓	✓
	③* 윤남이 송군에 맞서 天子를 討표하고 스스로 돌아감	✓	✓	✓	✓					
④ 일광대사에게 양육됨		✓	✓	✓	✓	✓	✓	✓	✓	✓
⑤ 일광대사와 이별 후 석 침정이 데려다가 사위 삼음		✓	✓	✓	✓	✓	✓	✓	✓	✓
⑥ 석 침정 사후 방씨 박대로 아내인 석 소저와 이별함		✓	✓	✓	✓	✓	✓	✓	✓	✓
⑦ 과거급제	⑦* 황성 가는 길에 만난 선비들의 詩句를 고쳐줌 (문과장원)					✓	✓	✓	✓	✓
	⑦* 문과시험 후 활을 빌려 무과 응시(문무장원)	✓	✓	✓	✓					
⑧ 반란을 도모하는 남만에 위유사로 방문	⑧* 처음부터 수문을 상변례로 맞이함					✓	✓	✓	✓	✓
	⑧* 수문을 위협하다 그 영웅성을 보고 순종함	✓	✓	✓	✓					
⑨ 남방 일대 巡撫 후 금산사 칠보암에서 석 소저와 재회함		✓	✓	✓	✓	✓	✓	✓	✓	✓
⑩ 북도(토번)왕과 석상(서번)왕의 난을 평정함		✓	✓	✓	✓	✓	이후 낙장	✓	✓	
⑪ 서천 백성 안무 중 모친과 상봉		✓	✓	✓	✓	✓	✓	낙장	✓	
⑫ 석 침정 덕에 들러 석침과 방씨를 만남		✓	✓	✓	✓	✓	✓	✓	✓	
⑬ 계양태수로 있던 부친과 상봉하고 위왕에 봉해짐		✓	✓	✓	✓	✓	✓	✓	✓	
⑭ 제람후 조질이 모함하고 난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함		✓	✓	✓	✓	×	×	*✓	×	
⑮ 양평공과 약대의 딸인 두 명의 양춘이 위왕에 대한 복수를 다짐		✓	✓	✓	✓	✓	✓	✓	✓	
⑯ 위국 가는 길에 석 소저와 석 침정덕 방문		✓	✓	✓	✓	✓	✓	✓	✓	

\* 내용 중 \* 표시는 해당 계열 안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표시함.

17) 〈현수문전〉의 전반부는 기자치성에 의해 태어난 현수문이 5세에 부모이산하고 일광대사와 석 침정에 의해 양육된 뒤 방씨의 박해에 시달리다 결국 출장입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현수문이 위왕이 되어 위국에 정착한 이후의 서사는 이본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국 정착 이후의 서사를 후반부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반부의 주요 서사를 1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흥윤표본, 동양문고본, 구할자본, 경판본은 모든 항목에서 같은 서사 단락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이본을 A계열로 분류하였다. 또한 천리대본, 박순호본 및 낙장인 김동옥본, 사재동본<sup>20)</sup>, 문화관본 역시 현전하는 내용을 통해 서사적 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들 이본을 B계열로 분류하였다. A계열과 B계열의 이본들은 ③, ⑦, ⑧, ⑭의 항목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데, 이 중 ③<sup>1)</sup>, ⑧<sup>1)</sup>, ⑭는 천자에 대한 번국(藩國)과 송조(宋朝) 대신의 부정적 인식<sup>21)</sup>이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단락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계열과 B계열은 각각 동일한 서사 단락과 작가의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계열과 B계열의 이본들은 고유명사 및 인물에 대한 표현 그리고 현수문과 일광대사의 동거 기간 등을 나타내는 데도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18) 표1의 서사 단락은 〈현수문전〉 이본들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서사를 현수문의 행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내되, 이본 간에 확연한 서사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서사 단락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9) 낙질의 정명기본 권3·권7을 동양문고본 권3·권7과 비교한 결과, 두 이본은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서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이본이었다. 따라서 이본 분류는 완질인 동양문고본만 대상으로 한다.

【동양문고본】 각설 어식 만왕의 괴식과 모든 신요의 인물을 살핀 후의 묘서를 전하고 인의네지와 충의지수를 이르고 천조의 무홀하신 성덕을 찬양하니……. (권3-1)

【정명기본】 각설 어식 만왕의 괴식과 모든 신요의 인물을 살핀 후의 묘서를 전하고 인□□지와 충효지사를 이르고 천조의 무홀하시던 성덕을 찬양하니……. (권3-1)

【동양문고본】 차설 위왕이 진공을 니별하고 전의 을나 제신을 모화 의논하고 즉일의 군스 “십만을 초발하여 황성의 니르니……. (권7-1)

【정명기본】 차설 위왕이 지공을 이별하고 전의 나와 제신을 모화 의논하고 즉일의 군식 사십만을 조발하여 황성의 니르니……. (권7-1)

20) 사재동본의 경우 ⑭번째 항목에서 B계열이 아닌 A계열의 이본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B계열의 이본들과 훨씬 높은 친연성을 보이기 때문에 B계열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를 통해 B계열의 다른 이본들에서 ‘제람후 조길의 난’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재동본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1) ③<sup>1)</sup>는 운남의 왕자 조승과 장군인 범영이 송조의 장군 유연충에게 송천자의 잘못들을 조목조목 이르고, 천자를 광정할 뜻을 밝히는 내용이 제법 길게 서술된다. ⑧<sup>1)</sup>는 송에 반할 뜻을 품고 있던 남만왕이 송의 天使로 온 수문을 위협하는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으며, ⑭는 송조의 대신인 제람후 조길이 현수문을 모함하고 천자의 부덕을 들어 반역을 도모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③<sup>1)</sup>, ⑧<sup>1)</sup>, ⑭를 서사 단락으로 하는 A계열의 이본들은 B계열의 이본보다 부정적인 작가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이본별 전반부 표현 양상 비교

	A계열				B계열				
	홍윤표본	동양문고본	구활자본	경판본	천리대본	박순호본	김동욱본	사재동본	문화관본
① 수문 부모	현탁지(현 범의 지), 당씨	현탁지(현범 의 지), 당씨	현탁지(현 범의 지), 당씨	현탁지(현 범의 으들), 당씨	현탁진 (“지리의 이들), ”양씨	현탁진(현 그의 아들), 장씨	현탁지(현 그의 아들), 장씨	현탁지(현 그의 아들), 장씨	현탁진 (현그의 이들), 장씨
② 첫모반자	연평왕, 우스장군 당흠	연평왕, 우스장군 장흠	연평왕, 우스장군 장흠	연평왕, 우스장군 흠	연평왕	연평왕, 우스랑	연형왕 장 스랑	연현왕	연평왕, 우시랑
③ 1차 침입자/맞선 宋將	윤남왕/ 유연충	윤남왕/ 뉴연충	윤남왕/ 뉴연충	윤남왕/ 유원충	남왕/ 유원통	윤남왕/ 유연통	윤남적/ 오연충	윤남도적/ 유연충	윤남도적/ 유연통
④ 2차/3차 침입자	토번왕/ 석상왕	북토왕/ 석상왕	북토왕/ 석상왕	북토왕/ 석상왕	토번/서번	토번/서번	낙장	토번/서번	토번/서번
⑤ 석참정/ 전처/딸 이 름 및 호	석광위/ 도씨/ 운혜· 월공선	석광위/ 조씨/ 운혜· 월공선	석광위/ 조씨/ 운혜· 월공선	석광위/ 조씨/ 운혜· 월공선	석광후/ 최씨/ 운혜· 호 없음	석광후/ 최씨/ 운혜· 호 없음	석광휘/ 최씨/ 운혜· 호 없음	석광우/ 최씨/ 운혜· 호 없음	석광원/ 최씨/ 운혜· 호 없음
⑥ 운혜의 기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운슈조	운슈조	운슈조	운슈지	운슈지
⑦ 방씨 두 딸	취혜, 현혜	취혜, 현혜	취혜, 현혜	장녀, 처	장녀 단골두통, 차녀 반신불수	장녀 담골두통, 차녀 반신불수	장녀, 말녀	춘혜, 말재딸	장녀 담골두통, 차녀 반신불수
⑧ 방덕	서종남	서종남	서종남	서종남	십스촌	열스촌	방씨의 열스촌	방씨의 사촌	스촌 오라비
⑨ 수문과 일광대사 동기간	9년	9년	9년	9년	8년	8년	8년	8년	8년

필사본의 경우 필사 습관의 차이나 전사(轉寫)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A계열과 B계열의 이본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구별되는 표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전반부의 서사적 특성으로 분류된 두 계열 간의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전반부 서사 단락의 비교를 통해 이본들의 계열을 분류할 수 있었다면, 적은 서사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본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후반부의 서사를 통해서도 <현수문진> 이본들의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다. 표3은 후반부의 주요 서사 단락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표3-이본별 후반부 서사 단락 비교

서사 단락		이본 계열		A계열				B계열				
				훈유 표본	동양 문고본	구할 자본	경관본	천리 대본	박순 호본	김동 욱본	사재 동본	문화 관본
㉑	㉑'	위국 정착 후 복수하려 온 두 명의 양춘을 내침	✓	✓	✓	✓	✓	×	낙장	✓	✓	
	㉑''	위국 정착 후 선정하다 죽고, 신천자 제문 지어 추모함						✓ 종결				
㉒	㉒'	진번왕의 후궁이 된 약대의 딸 양춘의 권유로 진번이 송을 공격하자 수문이 이를 진압하여 송실을 구함	✓	✓	✓	✓	✓			이후 낙장	✓	
	㉒''	송천자 수문과 그의 아들 현담, 백미천 등에게 태지를 부탁하고 葬함	✓	✓	✓	✓	✓				이후 낙장	
㉓	㉓'	신천자가 간신의 말을 듣고 영토 반환을 요구하며 次子 현담을 죽이고 위국을 공격하자 맞서 싸워 이김	✓	✓	✓	✓	✓ <sup>22)</sup>					
	㉓''	홍노가 송을 침범하자 先帝를 생각하여 송실을 구하고 다시는 신천자를 보지 않겠다며 위국으로 돌아옴	✓	✓	✓	✓	✓					
㉔	㉔'	여진이 송을 침범하나 청병하고 돌지 않음 (왕조교체: 송 → 여진)	✓	✓	✓		✓ 종결 <sup>23)</sup>					
	㉔''	여진이 송을 침범하고 결정적 위기에서 송을 구함 (송조 유지)				✓						
㉕	㉕'	현침 <sup>24)</sup> 이 흘필렬을 도와 원을 세우고 기왕에 봉해짐 (왕조교체 2: 여진 → 원)	✓	✓	✓							
	㉕''	수문 사후, 현침 역시 송조에 충성을 다함				✓						
			A-1		A-2		B-1	B-2	B <sup>25)</sup>			

- 22) 천리대본에는 ㉑에서 천자가 위국을 정벌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신천자와 위왕 현수문의 갈등이 유사하게 전개되므로 같은 단락에 표시하였다.
- 23) 천리대본에서는 이후 현수문이 위국을 침범하여 생포한 여진왕의 얼굴에서 천자의 기상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여진왕을 풀어준 뒤 위국을 잘 다스리다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 24) 훈유표본에는 현수문의 뒤를 잇는 아들의 이름이 '현침'으로 되어 있어 현수문의 장인인 석 참정의 아들 '석침'과 구별된다. 그러나 경관본과 동양문고본, 구할자본 등에는 모두 그 이름이 '현침'으로 되어 있다.
- 25) B계열의 이본들은 서사적 편차가 심한 까닭에 후반부의 서사를 짐작할 수 없다. 따라서 낙침의 이본들은 계열만 표시하였다.

표3을 통해 알 수 있듯 A계열의 이본들은 대체로 모든 서사 단락을 공유하나 ㉔, ㉕에서 흥운표본·동양문고본·구활자본이 ㉔', ㉕'를 서사 단락으로 취함에 비해 경판본은 ㉔'', ㉕''를 서사 단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A계열 가운데 흥운표본·동양문고본·구활자본을 A-1, 경판본을 A-2로 분류하였다. 또한 A-1의 이본들이 송에서 여진으로 다시 여진에서 원으로의 연속적인 왕조교체를 담고 있다면, A-2의 이본은 결국 송나라가 수문부자의 충성으로 유지되는 결말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A-1의 이본들을 '왕조연속교체형'으로, A-2의 이본을 '왕조유지형'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한편 천리대본은 A-1의 이본들과 공통적인 서사 단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㉔'에서 서사가 종결되며, 박순호본은 ㉔'와 같이 현수문이 위국에 정착한 이후 별다른 사건 없이 서사가 종결된다. 따라서 두 이본을 각각 B-1, B-2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진이 송을 멸하는 서사만 담고 있는 B-1인 천리대본은 '왕조단일교체형'으로, 별다른 사건 없이 송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말을 맺는 B-2의 박순호본은 '왕조공정형<sup>26)</sup>'이라 부르기로 한다.

### Ⅲ. 〈현수문전〉 선본(善本)과 이본 계통

#### 1. 선본(善本)<sup>27)</sup> 확정

고소설에서의 예언은 작가의 의도 및 서사 전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발화된 예언은 반드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수문전〉에는

26) '왕조유지형'과 같이 왕조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박순호본을 '왕조공정형'이라 한 것은 박순호본에는 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문부자의 충성심에 기대어 송조가 유지되는 서사를 담고 있는 경판본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 글에서는 이를 '왕조공정형'이라 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왕조연속교체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유지형', '왕조공정형' 등의 용어는 영웅소설 일반이 아닌 〈현수문전〉 이본들의 서사적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유형별 명칭으로 한정한다.

27) 이 글에서는 '完本'으로 오탈자가 적으며 서사적 유기성이 강하여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지 않고, 타 이본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온전한 작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본을 善本으로 한다.

표4-이본 간 예언과 실현 여부 비교

예언의 내용 <sup>28)</sup>	예언 및 실현 양상 <sup>29)</sup>			
	왕조연속 교체형	왕조 유지형	왕조단일 교체형	왕조 긍정형
① 현 사랑의 꿈에서 선관이 수문부자가 5세에 이별할 것이며, 훗날 재회하고 민중복을 누릴 것을 예언	○	△	○	○
② 수문을 양육한 일광대사가 수문이 하산 시 3개의 봉서에서 방씨의 壽禍와 부모 재회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예언	○	○	○	○
③ 수문 하산 시 일광대사가 하늘이 수문을 위해 보신감과 지룡검을 마련해두었음을 예언	○	△	○	○
④ 석 참정이 자신의 사후 후처 방씨가 자신의 딸 운혜와 수문 부부를 해할 것과 이를 피해 운혜가 금산사 칠보암에 가 있으면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	○	○	○	○
⑤ 현 사랑의 노복인 차복이 자신의 몽사를 통해 현수문의 장원급제를 예언	○	○	○	○
⑥ 수문과 재회한 수문의 모친 장씨가 자신의 몽사를 통해 곧 현사랑과 재회할 것을 예언	○	○	○	○
⑦ 진번과 송의 전쟁 중 현수문에게 죽은 서번의 장수 약대가 그의 딸 양춘의 꿈에 나타나 진번의 위험을 예언	○	△	○	서사 종결
⑧ 홀로 살아남아 여진으로 도망가던 양평공의 딸 계양춘에게 진강도인이 여진왕의 후궁이 되어 왕의 이들을 낳고, 전궁을 세운 뒤 황후가 될 것을 예언	○	★	○	
⑨ 현수문이 건국한 지 18년 뒤에 여진이 망하고 다시 원나라가 건국될 것을 예언	○	×	×	

다양한 인물들에 의한 다양한 예언이 나타나며, 서사 전개는 방향은 예언의 실현과정과 동일하다. 다음은 〈현수문전〉에 나타나는 예언과 그 실현 여부를 유형별<sup>30)</sup>로 정리한 것이다.

표4에 제시된 예언 가운데 ①-⑦은 작품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예언들로 판본의 성격에 따라 예언의 발화 장면이 생략<sup>31)</sup>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28) 〈현수문전〉의 서사는 예언과 그 실현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현수문전〉에는 수많은 예언이 나타난다. 예언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일광대사와 진강도인에서부터 비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석 참정과 현수문, 그리고 凡人이라 할 수 있는 장씨와 차복, 약대 등 다양한 인물에 의해 발화된다. 예언 가운데는 先見之明이나 知人之鑑의 성격을 띠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예견된 사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고소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예언’과 성격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9) 예언 및 그 실현 양상에 대한 표시는 예언이 존재했고 실현된 경우에는 ○, 예언의 발화는 생략되었으나 이후 서사를 통해 예언의 존재와 그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예언은 존재하나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는 ★, 해당 예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로 각각 표시하였다.

30) ‘왕조유지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긍정형’의 이본은 각각 경관65장본, 천리대본, 박순호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왕조연속교체형’은 여러 이본 가운데 홍윤표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1) ‘왕조유지형’의 이본인 경관65장본에서는 ①, ③, ⑦의 예언 발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서사 전개를 통해 각각의 예언들이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언은 성취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후반부 서사에서 왕조교체를 예언하고 있는 ⑧, ⑨는 유형별로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먼저, 송나라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을 예언한 ⑧은 ‘왕조연속교체형’과 ‘왕조단일교체형’의 이본들에서는 모두 성취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두 유형은 송나라가 망하고 여진이 건국되는 왕조교체 서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후 동일한 장면<sup>32)</sup>에서 ⑨는 ‘왕조연속교체형’인 홍윤표본에는 나타나지만, ‘왕조단일교체형’인 천리대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홍윤표본】 “너 송을 흥복고져하나 송턴지 무도하여 턴의 밋서 너진의 도라갓기로 턴의를 역지 못하여 다 무스이 돌너 보너니 턴즈를 모시고 돌아가 튕을 다하여 후인의 우음을 면하라 ④ 이후 십팔년이면 너진이 위턱하고 원이 설거시니……” (권 4-24)

【천리대본】 “신이 송조 충신으로 엇지 송실회복홀 마음이 업스리요만은 천의를 거스르지 못하여 항거지 아니하옵거니와 […] ⑤ 송선제의 말치아들 양평덕군을 한중에 왕을 봉하옵……” (권지하-34)

따라서 ‘왕조연속교체형’에서는 ④의 예언대로 이후 여진이 망하고 원나라가 건국되는 두 번째 왕조교체가 나타나나, ‘왕조단일교체형’에서는 ⑤처럼 현수문에 의해 송의 명맥이 한중에서나마 이어지는 것으로 서사는 종결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왕조단일교체형’인 천리대본에서 여진이 송을 멸하고 세운 나라의 이름이 ‘금’이 아닌 ‘대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나라를 세운 여진왕은 이후의 서사에서는 ‘원제(元帝)’라 칭해진다.

---

경관본에서 현수문은 ①의 예언과 같이 5세에 부모와 이산하고 재회 후 위왕에 봉해진다. ③은 수문이 밧을 갈다 자롱검과 보신갑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그제야 남악노인의 말을 심각하고’(경관65장본, 권지상-10)라는 서술이 이어지고 있어 예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⑦의 예언은 경관본에 그려진 여진과 송의 전투과정과 약대의 예언이 나타나는 이본들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통해 예언의 생략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의 생략은 장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상업적 이득을 도모했던 경관본의 특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경관본에서는 그 밖에도 현시랑이 수문의 수복을 칠성께 비는 장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이본에 나타나는 많은 장면이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2) ‘동일한 장면’이란 송을 멸하고 천자가 된 여진왕이 조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국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현수문에게 사로잡히고, 여진왕에게서 천자의 기상을 발견한 현수문이 여진왕을 풀어주기 전에 여진왕과 신비회 등에게 長廣舌을 늘어놓는 장면을 말한다.



【천리대본】 각설 녀진왕이 황제 위에 나아가 국호를 더원이라 하고 산골터를 녀진국에 보너여 종묘를 모셔오고 계량춘으로 황후를 봉헌 후 위의 갖초아 모스에 현알하니 양춘의 영귀하미 만고에 제일이다라 [...] 츠설 원황제 천하에 반쥬흔디…… (권지하-30)

또한 상·하권으로 구성된 천리대본은 상권은 63장이나 하권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갑작스러운 ‘대원’의 등장과 불균형한 상·하권의 구성방식은 천리대본이 원나라의 왕조교체를 담고 있는 이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하던 중 서둘러 서사를 종결했음을 짐작케 한다.<sup>33)</sup>

한편 ‘왕조유지형’의 이본인 경관65장본에도 진강도인의 예언 ⑧은 분명히 나타난다.

【경관65장본】 “너 턴문을 보니 송티지 위왕을 박디헝기의 니르러시니 엇지 하늘이 무심하리오 ㉔ 위왕이 혼번 공을 잡흔 후 다시 아니 도오리니 그디는 녀진국의 가면 반드시 황휘 되리니 턴기를 누설치 말나” 하고 ㉕ 환약 세기를 주며 왁 “제 일은 기용단이니 녀진의 갈 제 먹고 그 다음은 대국과 싯흘 제 즈직을 먹이면 턴흐를 도모홀거시오 그디 가는 길의 쯔 도인을 만나리니 성명은 신비회라” (권지하-7)  
 …… 턴지(신천자) 즈조 통곡하시며 위왕의 승전헝기를 하늘게 축슈헝더니 이날 위왕이 ㉖ 녀진왕을 죽이고 아골터를 사로잡아…… (권지하-15)

또한 ㉔와 같이 계양춘은 진강도인이 준 환약으로 여진왕의 후궁이 되고, 이후 송과의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운다. 또한 여진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신비회를 여진왕에게 모사로 천거하여 데려오기도 한다. 즉, ‘왕조유지형’에서도 진강도인의 예언은 일부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흥노로부터 신천자를 구한 뒤 “다시 보기 어렵도다”<sup>34)</sup>라는 말을 남기고

33) ‘왕조단일교체형’인 천리대본은 B계열에 속하는 이본이다. 따라서 천리대본에 ‘왕조연속교체형’에나 등장하는 元나라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B계열 역시 ‘왕조연속교체형’의 서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4) 위왕 현수문은 신천자가 간신들의 말만 듣고 선왕이 준 땅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아들이 현담을 죽이고 위국을 쳐들어오자 이를 막아내고 심하게 분노한다. 그리고 이후 흥노가 송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신천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왕을 현담의 장인인 진간이 선제의 유교를 들어 간신히 설득하고 결국 신천자를 구한 위왕은 “오날 이곳의 와 턴즈를 구헝른 선제유교를 봉송헝미니 다시 보기 어렵도다”(경관65장본, 권지하-6)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선다. 그러던 현수문이 이후 여진의 침입에 대해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망설임 없이 신천자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돌아섰던 위왕이 결정적인 순간 마음을 바꾸어 ㉠와는 달리 신천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다. 그리고 그 결과, ㉠와 같이 여진왕은 위왕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예언은 결국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강도인의 예언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다가 결국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관본에서 이 부분의 서사를 번개했음을 의미한다.<sup>35)</sup> 따라서 송조는 유지되고 이후의 서사에서 두 번째 왕조교체를 예언한 ㉡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빨리 서사가 종결되는 ‘왕조긍정형’의 이본인 박순호본을 살펴보자. 〈현수문전〉의 모든 이본에는 현수문에게 목숨을 잃은 서번의 모사 양평공과 서번의 장군 약대의 딸인 계양춘과 노양춘이 등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후반부 서사의 주요한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박순호본 역시 다른 이본들과 같이 계양춘과 노양춘이 처음 서사에 등장하여 위왕 현수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이 비중 있게 서술된다.

【박순호본】 이적의 양평공의 여주 계양춘과 약대의 여식 노양춘이 서로 도망하여 [...] “함께 슈문을 섬기면 위왕은 소년이라 호식할 거시니 우리 양인 중의 호느호느 위왕을 섬길제 그 썩을 당하매 부모의 구슈를 보복하고 죽어 천하의 도라가 부모를 뒤희련이와 그러치 아니하면 하면목으로 세상의 머리를 드러 몸을 용납하리오.” (330쪽)

그러나 이후의 서사에서 두 명의 양춘은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위왕 현수문이 신천자와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다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으로 서사는 종결된다. 그런데 박순호본의 마지막 장에는 서사가 분명히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권의 보쇼서”<sup>36)</sup>라는 문장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대, 박순호본은 두 명의 양춘이 등장하는 하권이 존재하는 이본을 저본(底本)으로 필사하다가 신천자와 현수문의 갈등

35) 경관본에서는 진강도인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표4와 같이 일부 예언 장면이 생략되고, ‘방씨와 난항의 수문 모해 모의’, ‘수문의 동서인 한생과 이생의 박대’ 등과 같이 모든 이본에 나타나는 화소들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토번 및 서번과의 전쟁 장면에 대한 서술에서는 토번의 장수로 싸우다 전사한 약대가 다시 서번의 장수로 등장하며, 모든 이본에서 모사인 양평공이 장수로 활약하다 갑자기 다시 모사가 되는 등 서술상의 불일치가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관본을 善本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36) 박순호본, 342쪽.

및 진강도인의 예언을 생략하여 송조의 멸망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린 개작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예언과 그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의 서사적 유기성을 검토해본 결과, 작품에서 발화된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실현되며, 서사적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왕조연속교체형’을 선본(善本) 유형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다음은 ‘왕조연속교체형’에 해당하는 여러 이본들 가운데서 선본(善本)을 확정해보도록 하겠다.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에는 흥윤표본과 세척필사본인 정명기본 및 동양문고본, 그리고 구활자본 5종이 있다. 이 중 정명기본과 동양문고본의 서사적 동일성은 이미 확인하였다.<sup>38)</sup> 또한 검토 결과, 다양한 발행처를 가지고 있는 구활자본들은 모두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39)</sup> 따라서 ‘왕조연속교체형’

37) 이 글에서 검토한 모든 이본에는 예외 없이 어린 현수문이 일광대사와 함께 남악에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청의동자가 등장한다. 청의동자는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들에서는 현첩(현침)의 스승인 남정산 엄 도인이 되는 인물로 원의 건국을 예언하는 또 다른 인물이기도 하다(도식 왕 “위왕은 남악 일광덕스에 제치라 너 2시의 일광선성의 제자로 이실제 위왕이 부모를 일코 거리로 둔닐제 보왓도다” 흥윤표본, 권4-32, 33). 따라서 원나라 건국서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본에서는 사실상 생략해도 무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이본에 청의동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청의동자의 서사적 중요성 때문에 관련 서사는 배제되었어도 그 흔적만큼은 남아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38) 각주 18) 참조.

39) 다음은 구활자본 조선서관본과 신구서림에서 유일하게 서술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동양문고본의 해당 서술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조선서관본】 차철 이적 문과장중에서 시관이 시지를 직축하야 어전에 드릴식 [...] 상이 덕회하사 서안을 처 갈아사되 “이글은 고금에 드른 글이라” 하시고 비봉을 써히사 신년을 직축하라 하시고…… (27면)

【신구서림본】 초시 문과장중의서 시관이 시지를 직축하여 어전의 드릴식 [...] 상이 대회하사 서안을 처 갈아사되 “그지라” 하시며 글을 제신을 주어 보라하시니 출관이 바다보니 갈아사되 “천고지저하여 성군니득지로다 광흥운턴하여 출냥이고 々로다 덕화 접천하여 히님명녕이로다 이안교목하여 고명고죽이로다 분정상하하여 차당팔역이로다” [...] 상이남필의 덕열하스 갈아사되 “이글은 고금의 드른지라” 하시고 피봉을 써히스 신년을 직축하라 하시고…… (26-27면)

【동양문고본】 초시 문과장중의서 시관이 시지를 직축하여 어전의 드릴식 [...] 상이 덕회하스 서안을 처 갈아사되 “그지라” 하시며 글을 제신을 주어 보라하시니 출관이 바다보시니 갈아사되 “천고지저하여 성군니득 지로다 광흥턴하여 출냥이고 々로다 덕화 접천하여 히님명녕이로다 이안교목하여 고명고국이로다 분정상하 하여 차당팔역이로다” [...] 상이남필의 덕열하스 갈아사되 “이글은 고금의 드른 글이라” 하시고 피봉을 써히스 신년을 재축하라 하시고…… (권1-22)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동양문고본과 신구서림본은 서술이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나, 조선서관본에는 밑줄 친 현수문의 釋語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신구서림본이 동양문고본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조선서관본은 박건회의 편집본을 실은 결과라 할

가운데 서사적 변별성을 갖는 것은 홍윤표본과 동양문고본 2종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홍윤표본을 선본(善本)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같은 ‘왕조연속고체형’의 이본인 동양문고본과 비교했을 때, 홍윤표본은 보다 풍성하고 유기적으로 구성된 서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조길의 난’은 동양문고본에서는 갑자기 역심을 품은 조길이 위왕이 된 현수문을 음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홍윤표본에서는 현 사랑을 무량도로 유배 보낸 배후 역시 조길로 설정하고 있어 서사적 개연성과 재미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또한 홍윤표본은 원(元)을 건국한 공으로 기왕이 된 현침이 원나라 공주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왕이 되기 전 들었던 “그덕 삼 부인을 둘 거시니”<sup>40)</sup>라는 최공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예언<sup>41)</sup>이 나타나는 동양문고본에서는 기왕이 되기 전에 취했던 두 명의 부인만 언급될 뿐 기왕이 된 후 맞이하는 원나라 공주는 등장조차 하지 않은 채 서사가 종결된다.

둘째, 서사 초반 몽사(夢事)를 통해 알 수 있는 현 사랑이 무자(無子)한 이유가 홍윤표본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제시되어 있다.

【동양문고본】 “그덕 인간의 적강호여 무후호게 점지호여게시더니” (권1-4)

【박순호본】 “그덕 인간의 하강호와 무죄호 슴람을 마니 죽여씨미” (221쪽)

【홍윤표본】 “그덕 전칭의 나서 인명을 만히 히히미 되엿기로” (권1-3)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문고본에는 현 사랑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원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박순호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에서는 현생의 죄업으로 인해 현 사랑이 무자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이본에서 예외 없이 현 사랑은 문(文)을 숭상하는 전형적인 군자형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그가 현생에서 인명을 해한 죄로 무자하게 되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

수 있다. 또한 구성상에도 신구서림본은 8권8책의 동양문고본의 1권에 들어 있는 서사를 상·하권을 각각 4회로 나누어 총 8회에 똑같이 담아냈으나 조선서관본은 동양문고본 8권의 서사를 총 23회로 나누고 각각 내용에 맞는 回題를 붙여놓았다.

40) 홍윤표본, 권4-30.

41) 노인 왈 “그덕은 삼 부인을 둘거시니 머무러 인연을 일우고 가라”(동양문고본, 권8-14).

무자의 원인을 전생의 죄업으로 돌리고 있는 홍윤표본이 가장 타당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홍윤표본의 서사를 생략하여 B계열 이본들의 서사를 구성한 흔적이 발견된다.

【홍윤표본】 어시의 발행하여 수삭만의 남만의 니르니 남만왕이 현어시 니르물 듯고 의논 왈 “송턴지 었던 사람을 보너여 무죄히 죽게호는고 보리라” 호고 좌우를 정제호고 도부슈 수십명을 락복호 후 [...] 어시 츀언을 듯고 크게 꾸지져 왈 “네 남방 오랑기로 었지 감히 군부를 물으며 턴스를 이럿듯 욱호는다 [...] 만왕이 그 영웅기상을 항복하여 [...] 턴스를 하여 ㉔상빈네로 극적이 디접호니 어시 턴즈의 도서를 니르고 무홀호시는 성덕을 디강호니 만왕이 제신을 거느리고 계하의 노력 순종호거늘…… (권1-43, 44)

【문화관본】 한님이 사은숙비호고 울남으로 향하여 울남의 니르니 울남왕니 천스를 보고 ㉕상빈에로써 디접호니 합님니 울남 물식을 살핀 후의 천즈 조서를 전호고 다투야 교훈호니 울남왕니 조신을 거느리고 순종호거늘…… (전1-28)

위의 예문들은 표1의 서사 단락 ⑧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홍윤표본에는 한 번 중원을 침입했으며, 다시 반할 뜻을 품고 군사를 조련하던 만왕(울남왕)이 천사로 온 수문을 적대적으로 대하다 그 영웅성에 탄복하여 순종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서술된다. 반면, 문화관본을 비롯한 B계열의 이본들에서는 역심을 품었다던 만왕이 수문을 보자마자 상빈레로 맞고 순종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서사적 긴장감뿐 아니라 개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밑줄 친 ㉔, ㉕만 살펴보면 과정이야 어떻든 만왕(울남왕)이 현수문을 상빈레로 맞이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는 내용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sup>42)</sup> 따라서 문화관본을 비롯한 B계열의 이본들이 홍윤표본의 서사에서 만왕과 현수문의 갈등을 생략하고 갈등이 해소된 이후의 상황만 서술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윤표본이 선본(先本)일 가능성과 더불어 〈현수문전〉의 창작 시기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사기 혹은 간기 등을 통해

42) 그러나 같은 ‘왕조연속고체형’의 이본인 동양문고본에는 이 장면에 대한 서술 양상이 이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 턴스를 관디홀시 어시 왕의 괴식과 모든 신요의 인물을 살핀 후 쥬서를 전호고 인의예지와 효제충의지스를 권장호시 천즈의 무홀호시는 성덕을 찬양호니 만왕니 제신을 거느리고 향안을 비설호 후 쥬서를 바드니……’(동양문고본, 권3-1).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본들은 A계열의 이본들뿐이다. 이 가운데 홍윤표본과 같이 ‘왕조연속교체형’에 속하는 세책본인 정명기본과 동양문고본은 각각 1899년과 1905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따라서 ‘왕조연속교체형’의 서사는 적어도 1899년 이전에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홍윤표본에는 ‘己未十二月初一日下帶洞潭溪畢’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여기서의 기미년은 1859년이나 1919년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홍윤표본은 동양문고본에서 생략된 내용들이 나타나며, 서사적 불일치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보다는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유동신간(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847-1885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sup>44)</sup>되는 경관본은 서사적 유기성이 떨어지고 서술상의 불일치가 심한 까닭에 동일 계열의 저본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경관본에는 다른 이본과는 달리 차복의 꿈에 현수문의 장원급제를 상징하며 나타난 용이 ‘황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 계열이면서 ‘황룡’이 나타나는 이본은 홍윤표본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홍윤표본은 1919년보다는 1859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45)</sup> 더불어 이본들의 형성 시기를 바탕으로 <현수문

43) 정명기본은 권3과 권7에 ‘세조지희(이하과장)’와 ‘세조□히스월일이현필서’라는 필사기가 있어, 이를 통해 1899년 기해년에 阿峴 세책가에서 필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양문고본 역시 ‘세을사중추일항목동서(권1, 2, 3, 5)’, ‘세을히중추일항목동서(권6)’, ‘세을사계추일항목동서(권4, 7, 8)’라는 필사기를 통해 1905년 을사년과 1875년 을해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양문고본이 필사된 항목동 세책가의 영업 시기는 1900-1915년 사이이고, 동양문고본 8권은 모두 한 사람에게 의해 필사되었다. 따라서 권6의 ‘을히’ 간기는 ‘을사’의 오기이거나 혹은 을사년에 필사된 세책을 베끼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 제12권, 2001, 458-461쪽).

44) ‘油洞新刊’의 ‘油洞’은 <현수문전>을 제외한 작품들에서는 ‘由洞’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별개의 ‘油洞’ 방각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적은 까닭에 이창현은 이 둘을 같은 곳으로 보았으며, 이 글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油洞에서 방각된 작품 가운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작품에는 <동몽선습>의 1종(1847), <삼설기>의 1종(1848), <全韻玉篇>(1850), <사씨남정기>의 1종(1851), <增補天機大要>(1855), <史要聚選>(1856), <史略>(1885, 1825) 등이 있다. 이 중 <史略>은 ‘乙酉季冬由洞新板’이라는 간기가 있는데 여기서의 ‘을유’는 타 방각소에서 <史略>이 간행된 시기(銅峴: 권1, 1863년, 武橋: 권1, 1863년, 希洞: 권2, 1885년)들을 고려할 때, 1825년보다는 1885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동은 대략 1847-1885년 사이에 활동한 방각소임을 알 수 있다(이창현, 앞의 논문, 250-258쪽).

45) 홍윤표본이 1919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홍윤표본이 동양문고본 등의 세책본의 서사를 보완한 후대의 필사본이라면 경관본과 동일하게 황룡이 나타나는 대신, 세책본을 비롯한 다른 이본들과 같이 ‘청룡’이 나타나야 마땅하다. 또한 홍윤표본에는 소장자와 필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소장자에 대한 정보 가운데 ‘美洞’은 약 1852-1885년 사이에 활동했던 경관 방각소가 있던 곳이며(이

전)은 대략 19세기 초반에는 창작되어 활발히 유통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2. 이본 계통<sup>46)</sup>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총 16종의 이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수문전> 이본을 2개의 계열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인 홍윤표본을 선본(善本)으로 확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원본 계열은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예인들이 성취되어 결국 왕조가 연속적으로 교체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본 계열의 서사적 특징은 현존하는 A계열의 이본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수문전> 이본의 계통을 간단히 나타내면 표5와 같다.

---

창헌, 앞의 논문, 253쪽), 필사기에 있는 ‘下帶洞’은 서울시시사편찬회에 따르면 지금의 성동구 상왕십리 일대로 조선시대에는 훈련원으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한 하급군인들이 사는 마을이었다고 한다. 비록 ‘下帶洞’이 ‘下臺洞’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下臺’는 ‘下帶’로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6) B계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回章의 흔적이 발견되는 이본들이 있다.

【박순호본】 ‘방씨모살수문하고, 현생이작별석낭자하다’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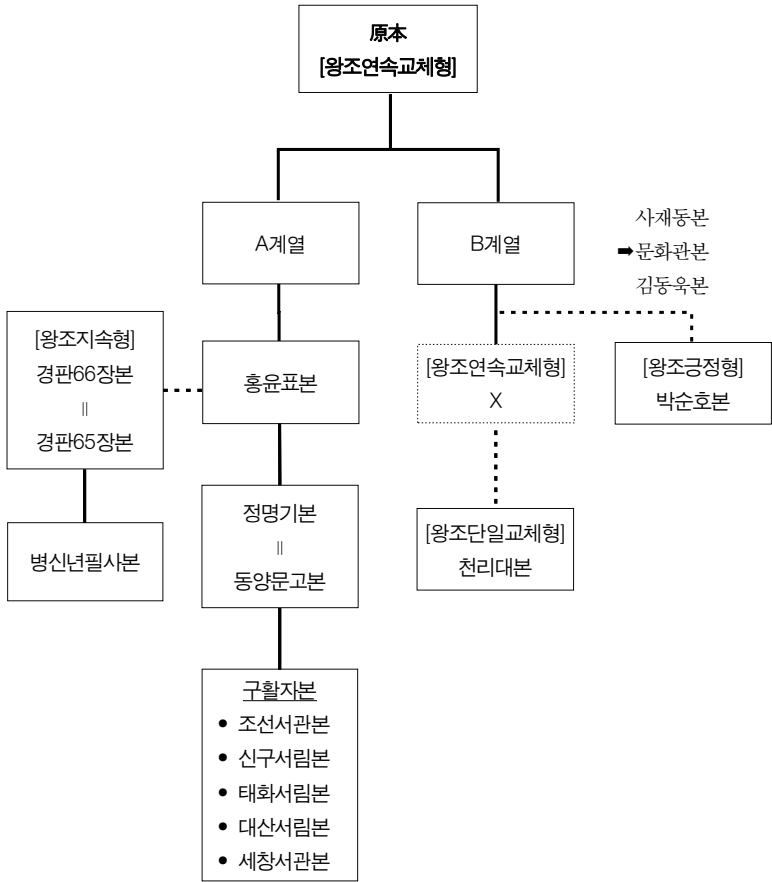
【김동육본】 ‘방씨모함현낭하고, 수문니이별운혜하다’ (21면)

【문화관본】 ‘방시모살수문하고, 수문이별석낭자라’ (전일-14)

그러나 위의 세 이본에 나타나는 회장의 흔적들은 개별적인 차이를 보인다. 박순호본의 경우 빈번하게 회장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앞일에 대한 요약뿐 아니라 지나간 사건에 대한 정리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회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김동육본에서는 간단한 문장으로 된 2-3개의 회장이 발견될 뿐이다. 또한 문화관본에는 비교적 회장의 흔적이 고르게 나타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회장의 형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 편의 이본에서 예문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진 회장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은 원본 계열에서 파생된 이본들 가운데 분명 회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본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원본 계열이 회장의 형식을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장이 발견되는 이본들이 선본 유형과는 거리가 있는 이본들인 까닭에 회장을 원본 계열의 특성으로 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만 <현수문전> 이본 가운데 회장의 형식을 갖는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만 언급하겠다.

표5-〈현수문전〉 이본의 계통<sup>47)</sup>

● 수용 : ———  
● 변개 : ······



47) 표5는 이본의 형성 시기보다는 원본의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본 간 서사의 수용과 변개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병신년필사본은 1896년에 경관본을 필사한 이본임을 확인하였기에 표5와 같이 표시해두었으며, 천리대본은 '왕조연속교체형'의 변형 혹은 개작으로 판단되는 바 B계열에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인 'X'의 존재를 가정해두었다. 또한 낙질의 이본들은 유형을 알 수 없기에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다양한 <현수문전> 이본들을 검토하고 이를 2개의 계열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한편, 여러 이본들 가운데서 **홍윤표본**을 선본(善本)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본들의 형성 시기를 바탕으로 <현수문전>의 창작 시기를 19세기 초반으로 비정하였다. 이 시기는 이미 사대(事大)의 대상이었던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라 멸시했던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시대였다. ‘호불백년(胡不百年)’이 천명(天命)이라 믿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4대에 걸쳐 안정된 국정운영과 문화적 번영까지 이룬 청나라를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명청교체 후 ‘복벌’로 시작된 대청인식은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북학(北學)’으로까지 전환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면 청나라의 번성과 중원 지배를 긍정하는 보다 진전된 대청의식이 발견되기도 한다.<sup>48)</sup> 따라서 <현수문전>이 송의 멸망과 천명에 의한 여진 혹은 원나라의 건국을 담을 수 있었던 창작 여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왕회전>, <징세비태록>, <태원지>와 같은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변화된 대청인식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방증한다.<sup>49)</sup> 다시 말해 <현수문전>의 작가는 소설이라는 장르 안에 변화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중국 왕조의 교체라는 역사적 흐름을 통해

48) 18세기의 박지원은 전대의 완고한 중화의식이 남아 있는 가운데 ‘北伐을 위한 北學’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북학론을 펼쳐야 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박지원의 학문적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은 훨씬 진전된 대청의식을 보이며 직접적으로 청나라의 번성을 이야기했다. 1823년에는 영의정에 오르기도 한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은 청나라의 번성을 자연스러운 하늘의 이치라 하였으며, 1816년에 대사성에 오른 홍희준(洪羲俊)은 청나라가 중국에 들어간 것은 ‘中國의 否運’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홍경모(洪敬模, 1774-1851)는 청의 치세는 漢唐 때도 없었던 것이라 찬양하기도 했다. 당대의 대청인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대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 관념의 형성」, 『한국사연구』 제145호, 2009, 69-75쪽).

49) 淸나라를 배경으로 한 <왕회전>에는 중원을 지배하는 淸나라의 實體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식이 발견되며, <징세비태록>에는 淸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인식이 나타난다. 또한 元末을 배경으로 하는 <태원지>에서는 天命을 받은 곳이 中原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미 18세기에 창작·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백전> 역시 변화하는 대청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임치균,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제24집, 2010, 129-131쪽; 주수민, 앞의 논문, 221-227쪽). 따라서 <현수문전>이 창작되었을 즈음에는 이미 청나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소설작품에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구현해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수문전〉은 당대의 변화된 세계인식을 담아낸 영웅소설로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중화주의는 여전히 19세기에 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현수문전〉이 ‘왕조연속교체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유지형’, ‘왕조긍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이본을 갖는 것은 복합적인 조선 후기의 중국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나라의 건국으로 서사적 결말을 맺는 것과 송나라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수문전〉을 통해 당대의 복합적인 중국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이본이 지니는 각각의 주제의식 및 작가의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경관65장본, 『한국고전소설 판각본자료집 5』. 국학자료원, 1997, 957-991쪽.
- 경관66장본,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MG4-1-162).
- 김동욱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마이크로필름(R35P000042-2).
- 대산서림본, 서울대학교 소장.
- 동양문고본, 이윤석 교주, 『현수문전·소대성전·장경전』, 이회, 2005.
- 문화관본, 완관본문화관 소장.
- 박순호본, 『한글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9』. 월촌문화연구소, 1986, 215-342쪽.
- 병신년필사본, 소장처 미상.
- 사재동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마이크로필름(R16N001261-7).
- 세창서관본, 고려대학교 소장.
- 신구서림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정명기본, 정명기 소장.
- 조선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천리대본 〈육선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영인본.
- 천리대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영인본.
- 태화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홍윤표본, 홍윤표 소장.
- 김용기, 「출생담을 통한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내용 비교연구」. 『어문연구』 제37권 제2호, 2009, 191-219쪽.
- \_\_\_\_\_,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53호, 2009, 105-134쪽.
- 김종철, 「玄壽文傳의 분석」. 『인문논총』 제1권 제1호, 1990, 41-62쪽.
- 김칠환 윤색 및 주해, 『현수문전』. 북한: 문예출판사, 1988.
- 김현정, 「〈현수문전〉의 이본 특징과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37쪽.
-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48-262쪽.
- 임채문, 「〈현수문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19쪽.
- 임치균,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제24집, 2010, 111-134쪽.
- 정상진,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구조와 두 가지 문제」. 『우암사려』 제4권, 1994, 79-107쪽.
-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 제12권, 2001, 445-480쪽.

-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대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 관념의 형성」.  
『한국사연구』 제145호, 2009, 69-75쪽.
- 조해숙, 「〈현수문전〉 이본고」.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제49권, 1993, 59-88쪽.
-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833-834쪽.
- 주수민, 「〈장백전〉의 형성동인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제41권 제2호, 2013, 207-231쪽.
- 최범호, 「현수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7-20쪽.

## 국 문 요 약

이 글은 〈현수문전〉 이본 16종을 검토하고 먼저 전반부의 서사적 차이를 근거로 하여 검토한 이본들을 A계열과 B계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왕조교체 서사의 양상을 중심으로 다시 두 계열의 이본들을 ‘왕조연속교체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유지형’, ‘왕권 긍정형’의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이후 〈현수문전〉 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언과 그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4개의 유형에 속하는 이본들의 서사적 유기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왕조연속 교체형’의 이본들 가운데서 ‘홍윤표본’을 선본(善本)으로 확정하였다. 4권4책 완질인 홍윤표본은 송나라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 그리고 다시 여진이 망하고 원나라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홍윤표본은 이 글에서 검토한 완질의 이본들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유기적으로 구성된 서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홍윤표본은 필사기를 통해 1859년 기미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본들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이본이라 생각된다.

**투고일** 2013. 12. 20.

**심사일** 2014. 2. 5.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현수문전〉(Hyun Su Mun Jeon), 영웅소설(a heroic novel), 이본연구 (different versions study), 홍윤표본(Hong Yunpyo version), 경판본(the Seoul version), 왕조교체(change of dynasty), 왕조연속교체형(consecutive dynasty change type), 예언과 성취(prophecy and realization)

## Abstracts

### The Study on Different Version of 〈Hyun Su Mun Jeon〉

**Joo, Soo-min**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16 different versions of 〈Hyun Su Mun Jeon〉 and classified them into two groups—A and B—based on the descriptive differences in the first half; taking the second half, I further classified it into 4 subgroups based on the descriptions of the dynasty changes with 4 different types: 1. consecutive dynasty change type, 2. single dynasty change type, 3. dynasty maintenance type, 4. dynasty affirmation type. Then, focusing on the prophecies and the aspects of their realization in the epic 〈Hyun Su Mun Jeon〉, I reviewed the books in terms of their descriptive organic relationships per 4types grouping them—as a result, consequently selecting ‘Hong Yunpyo version’ to be the best. ‘Hong Yunpyo version’—composed of 4 volumes and 4 books in total—shows the realization of all the prophecies appearing in the process of Song Dynasty’s fall and the founding of Yeojin, of the fall of Yeojin and the following founding of Won. Also, ‘Hong Yunpyo version’ has the most organically composed and rich narratives among the reviewed. Moreover, I think ‘Hong Yunpyo version’ was probably transcribed using a transcriber in 1859, the year of Gimi, which makes it the oldest of the books whose written eras can be estimated.